

도시를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의 이야기

<핑크&블루 프로젝트>(2005-)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윤정미의 작가적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작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일찍이 <동물원>(1998~1999)과 <자연사박물관>(2001) 연작에서 작가는 인간의 기준과 체계 아래 동물을 오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의 유사한 속성을 중립적 사진들을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윤정미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통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위한 분류 체계에 관심을 갖고 사진작업을 진행해왔다. <핑크&블루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사진이었다. 작가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특정 색에 대한 선호를 계기로 성장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상 윤정미의 사진 중 사회에 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들 중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도 없다. 그녀는 언제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보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말해온 것이다. 사진의 방법론으로는 동일한 소재의 여러 대상들을 유사한 구도로 반복해 촬영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단상을 보여주는 유형학을 주로 사용해왔다. 특히 피사체를 그들의 익숙한 생활공간 안에서 정면으로 촬영하는 구도는 작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형식적 특징으로, 인물에만 집중하는 일반적인 초상사진과 달리 인물과 관련된 주변의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도 기여해왔다.

윤정미의 최근작 <반려동물>(2008~2015)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작가의 고유한 특징들이 겹쳐지는 작품이다.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동물에 관해 다루는 소재의 측면에서부터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해 사회적 현상을 다룬다는 작업 방식과 주인공인 동물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배경에 시선이 가도록 하는 형식적 구도를 반복함으로써 전체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려동물>은 작가가 키우는 강아지 '몽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삭막한 도시의 아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녀의 아이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고 오랜 숙원 끝에 생후 2개월 된 뽀뽀용 몽이를 입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일은 엄마인 작가의 몫이 되었고 그렇게 그녀와 몽이의 동행은 시작되었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몽이의 "나비날개처럼 예쁘게 펼쳐진 귀 아래 잔털들"이 본인의 흘러내린 잔머리와 닮았으며 그런 몽이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랑스런 막내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의 애정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울하거나 힘들 때 몽이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는다는 작가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수십 명의 반려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지인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을 찍기 시작했고 점차 소개를 받아 대상을 늘려갔다. 강아지, 고양이, 기니피그, 토끼, 거북이, 이구아나까지 동물의 종류도 다양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생활하는 익숙한 공간에서 동물에 친근한 작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을 포착해서인지 사진 속 동물과 사람은 모두 매우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몽이와 작가처럼 표정, 자세, 분위기, 혹은 그 무엇이 되었건 서로 닮아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는 어떠한 불안이나 불행도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들을 보고 있다면, 저 동물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 동물을 키우게 되었을까, 저 둘의 만남은 서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등, 이런 저런 상상을 하게 된다.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동기는 아이가 하나이거나 본인이 혼자여서 새로운 가족으로 동물을 들이거나 키우고 있는 동물이 혼자여서 또 다른 동물을 들이는 식으로, 대체로 '외로움'을 상쇄하리라는 기대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기대의 충족보다 보살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거나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 오기도 할 것이다. 실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태어나서 한 사람의 주인과 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동물도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동물의 만남을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당시의 기억을 물어보면 "처음 보았을 때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의 촬영 동의서들을 보면 조금 더 각별한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낯선 남자를 보면 사나워지는 갈색 푸들 초코는 현재 주인을 만나기 전 여러 차례 남자 주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또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아한 화이트테리어 또봄이는 의외로 두 번이나 파양되었다가 현재 세 번째 주인을 맞은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처음에 딸이 우울해 하는 어머니를 위해 입양했다가 지금은 루게릭병에 걸린 아버지에게 더 큰 의지가 되고 있는 몰티즈 진돌이,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이집 저집 떠돌아다니던 불쌍한 모습 덕에 거두어진 러시아인 블루 깐초, 유학 간 딸이 데리고 와서 지금은 딸 대신 부모님 곁을 지키는 몰티푸(몰티즈+푸들) 만두, 시각장애인 주인과 24시간 함께 하며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리트리버 풍요와 포리처럼 남다른 사연들이 많다. 다행히 현재 이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만남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모든 동물과 사람의 만남이, 또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어 씁쓸하다. 사실상 <반려동물>은 동물에 관한 사진이라기보다 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드러내는 사진일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사진에서 의외로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은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공간이다.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있는 순간 확실히 그들의 얼굴 표정은 밝고 충만하다. 어렵게 만난 사이일수록, 또 오랜 시간 함께 한 사이일수록 애뜻함이 더 하고 그러한 감정이 사진에 묻어나는 듯하다. 그리고 그밖에 사람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 앉거나 선 자세, 페디큐어와 양말 등 작은 부분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취향과 신상을 짐작해보는 일도 사진을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반려동물> 연작에서 강조점은 촬영 배경이 되는 공간의 모습과 각 개별 작품의 제목에 포함된 지명을 확인하면서 동시대 가족 및 주거 형태와 생활양식을 가늠하는데 있다. 혼자 사는 대학생의 작은 원룸부터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고급아파트까지 구체적인 가족 형태와 거주 환경은 각기 다르지만, 전체 연작은 크게 2인 이상의 가족 단위 가구와 1인 가구로 양분된다. 가족 단위의 경우 - 혼자 촬영에 임한 경우에도 - 대부분 집 안의 거실을 배경으로 하는 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침실이나 본인의 직업을 짐작하게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 연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단위의 가구보다 동물을

키우며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사람들이다. 갤럽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하는 '반려동물 동거 현황 및 동물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체 반려인의 인구는 줄어든 반면 2~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10% 내외로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형제자매 수가 적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들이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제기된다. <반려동물> 연작 중 동물과 단 둘이 있는 반려인들의 모습이 더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동기가 외로움을 상쇄하려는 이유임이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편 특정한 사회적 코드가 읽혀지는 사진들도 있다. 예컨대 서초동, 잠실동, 반포동, 판교동, 정자동 등지의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가족 소파 뒤편으로 걸린 그림 액자나 주변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이태원동, 한남동, 해방촌 등지의 실내외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자유를 추구하는 싱글족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생활양식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커튼, 쿠션, 침구 같은 패브릭과 집안 곳곳의 소품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취향은 물론, 특정 시대의 유행까지도 짐작케 한다. 그중 꽃무늬 포인트 벽지나 이케아 철제 서랍장처럼 상징성이 강한 아이템들도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은 동물에 관한 작업이라기보다 동물과 함께 지내는 오늘날 도시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사회적 양상을 반영하는 작업인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넘어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흔히 쓰일 만큼, 동물을 위한 호텔, 병원, 촬영 스튜디오, 보험, 놀이방 등 다양한 반려동물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강남의 동물병원에서는 탄산수 스파, 목욕이 인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몇 해 전 겨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서 떼죽음 당한 고양이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이미지를 해치고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추위를 피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간 고양이들을 가두어 죽였다는 것이다. 당시 끝 모를 인간의 이기심에 아연실색하면서도 인간 '집사'의 극진한 시중을 받고 있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고양이들이 떠올랐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삶이란 그 질은 물론 목숨까지도 인간의 선택과 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알갭게 느껴졌다. 최근까지도 쓰레기봉투에 담겨 주인에게 유기된 강아지나 독극물을 먹고 쓰러진 길고양이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폭력성에 희생당한 도시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여전히 이 도시 한편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그들의 가장 좋은 벗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간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 윤정미의 <반려동물>은 도시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둘러싼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관해 암시한다. 가장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해 어떠한 주장도 없는 무덤덤한 사진들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예의 그 고유함으로 말이다.

신혜영, 미술비평